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10-11)



〈빛을 찾는 사람들〉, 김옥순 수녀작

**[제1독서]** ..... 이사 60,1-6

**[제2독서]** ..... 에페 3,2,3ㄴ,5-6

**[화답송]** ..... 시편 72(71),1-2,7-8,10-11,12-13  
(◎ 11 참조)

**[복음 환호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복음]** ..... 마태 2,1-12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87] 동방의 세 박사
- 봉헌성가: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154] 주여 어서 오소서  
[186] 구원을 위한 희생
- 파견성가: [100] 동방의 별

##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 <sup>1</sup>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sup>2</sup>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sup>3</sup>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sup>4</sup>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sup>5</sup>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sup>6</sup> ‘유다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sup>7</sup>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sup>8</sup>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sup>9</sup>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sup>10</sup>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sup>11</sup>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sup>12</sup>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은 또 하나의 ‘성탄 대축일’이라고도 한다.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 ✠ 묵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심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신앙인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반가운 일일 테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그다지 흥미로운 일이 아닐  
테지요. 동방 박사의 등장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이들 안에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느님을 모르고, 유다 문화를 모르는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한 말은 종교적인 차원으로만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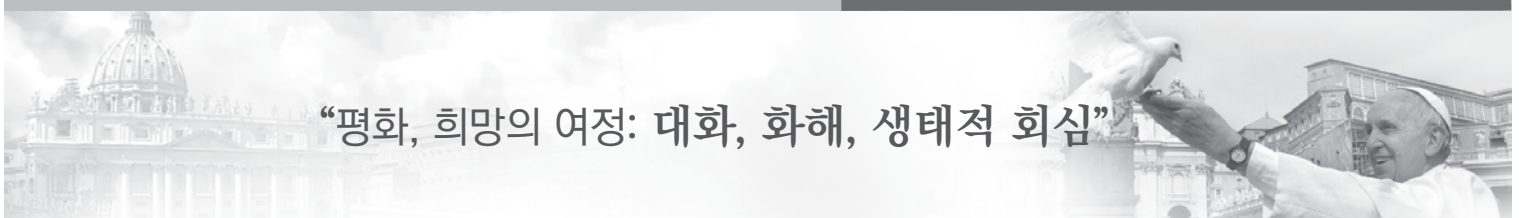
“유대인들의 임금”, 이 말은 당시 정치적 권력을 잡고  
있던 헤로데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일 수 없듯이, 유대인들의 임금은 헤로데여야  
하였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로데에게 그들이 예로부터 기다린 메시아  
신앙을 짊어 줍니다. “유다 땅 베들레헬”, 그곳에서 참된  
통치자가 나와야 한다는 신앙 고백은 헤로데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지요.

예수님의 등장은 마냥 좋은 것만도, 마냥 나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등장은 당시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지요.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명예를 중시하는 계층일수록 세상을  
바꾸는 데 소극적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편하니까요.  
반면에 돈이 없고 힘이 없어 내세울 자랑거리 하나 없는  
계층은 늘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세상,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 서로의 ‘다름’ 을 운명처럼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것에 눈이 멀어 다른 이의 처지를 읽어 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다양한 세상’ 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만 갇혀 다른 이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은 참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현은 결국 ‘내’ 가 ‘우리’ 안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또 다른 묵상으로 초대합니다.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 “평화, 희망의 여정: 대화, 화해, 생태적 회심”

### 희망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교황은 평화란 “위대하고 귀중한 가치이자, 우리 희망의 대상이며, 전 인류의 열망”이고,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인류의 “기억과 육신”에 새겨진 전쟁과 분쟁의 상처를 상기하면서, 전쟁이 굴욕과 배제, 비애와 불의를 야기하는 등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 형제애, 인류의 선천적 소명

“모든 국가들이 증오와 폭력을 부채질하는 착취와 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남녀, 젊은이와 노인이 존엄성, 신체적 온전함,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 공동체적 연대, 미래의 희망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교황은 “모든 전쟁이 인류의 선천적 소명인 형제애를 파괴하는 일종의 ‘형제살해(fratricide)’”라고 강조했다.

###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양립할 수 없는 평화와 안정의 가치

교황은 전쟁이 “타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곧 “이기심, 자만, 증오, 그리고 타인을 파괴, 배제, 희화화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권력 강화 및 지배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연대와 협력이라는 국제적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할 때야 비로소 평화와 국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형제애는 대화와 신뢰를 만듭니다

교황은 불신과 두려움이 “관계를 약화시키고 폭력의 위험을 확대한다”면서, “이 악순환 안에서 평화로운 관계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핵억제(nuclear deterrence)’도 결국에는 안보라는 환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교황은 현대 사회 불신의 역할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란 “하느님이라는 우리 공동의 근원에 기반하는 진정한 형제애”를 추구하고, 이를 “대화과 상호 신뢰”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화에 대한 갈망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보다 못한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평화의 미래를 위해 과거를 기억하기

교황은 우리의 기억이 곧 희망의 지평이라고 설명했다. “전쟁과 분쟁의 어둠 속에 있을 때면, 이전에 (내게) 베풀어진 작은 연대의 몸짓에 대한 기억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담대하고 영웅적인 결정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기운을 이끌어내고 개인과 공동체 안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힙니다.” 교황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 피해자들, ‘히바쿠샤(피폭자)’와의 감동적인 만남을 언급했다. 이들은 더

공정하고 형제애적인 미래 건설을 보장하고 촉구하기 위해 지금도 과거의 공포를 증거하고 있다. 교황은 기억이란 “평화 증진을 위한 현재와 미래의 결정에 그 기반을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경험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 평화는 “언제나 꾸준히 이룩해 나가야 하는 것”

교황은 평화란 “언제나 꾸준히 이룩해 나가야 하는 것”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78항)이라면서, 끊임없이 공동선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임을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진 증거자들이 필요합니다. 배제와 조작을 거부하고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중재자들(peace-makers)이 필요합니다.” 교황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의견을 넘어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 사이의 확신에 찬 대화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도 없다”고 말했다. 또 경청의 자세를 통해 “원수에게서 우리 형제자매의 모습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의 과정에는 인내, 헌신, 창의력이 필요하다면서, 복수심보다 더 강한 공동의 희망을 향해 길을 열고 단계적으로 평화를 건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로를 형제자매로 인식하기

교황은 선의를 지닌 모든 이로 하여금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하느님의 아들딸로, 형제자매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라고 촉구했다. 또 존중의 길을 통해서만 “보복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희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우리가 “용서 안에서 사는 법”을 익힐 때야 “평화의 사람으로 거듭날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끝으로 교황은 “화해의 여정에는 인내와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 평화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곧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 한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에 영감을 얻어, 평화의 가능성을 믿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우리가 화해의 성사에 의지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나감에 있어, 분쟁의 씨앗이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만남의 문화를 조성하며, 보편 형제애에 생명을 불어 넣도록 우리를 초대했다. 이는 곧 “우리 이웃 및 하느님의 피조물에 대한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 존재하는 모든 폭력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은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는 그 평화를 이 시대의 모든 이와 나눠야 합니다. 성령께서 매일 우리 안에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일깨워 주시어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장인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



본당 송년 잔치



루카회 송년 파티



KOC 송년 파티

### ● 본당 송년 잔치 · 단체별 송년 모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꾸르실로 송년 올드레야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올드레야'가 지난 12월 21일(토) 친교실에서 열렸다. 130여 명의 꾸리실스파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간사 이성기 토마스 형제를 소개하면서 송년 올드레야를 시작했다.

즐거운 식사시간을 마친 후 2부에서는 장기 자랑 시간을 가졌다. 합창을 한 '밀알팀'을 필두로 성극에 '은유팀', 신명나는 댄스에 '겸손팀', 예수님 사랑을 토속적 춤사위로 표현한 '순종팀', 세련된 율동미를 선보인 '평화팀', 멋진 슈트를 입고 최선을 다한 '희망팀', 강같은 평화를 춤으로 승화시킨 '은총팀', 닭 분장과 퍼포먼스로 우리 먹거리를 일깨워준 '사랑팀', 전국 노래자랑에 '소망팀', 난타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1등을 차지한 '은혜팀' 등 많은 시간 연습을 통해 친목을 다지며 각 팀 모두 열정의 빛을 발했다.

마지막으로 백인현 신부님의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2020년엔 더 사랑하자고 다짐했다.



CYO-News

## CYO End of the Year Party December 27, 2019



On Friday December, 27<sup>th</sup> CYO had an end of the year party entirely planned by the CYO student council. It was a time for students to enjoy food and snacks brought by fellow students and enjoy music and activities planned by the student council. All students and teachers enjoyed their time together as they watched the CYO 2019 recap video and open mic session where students were able to open up to each other.

CYO Teachers



Jacob Nam 9<sup>th</sup> grade



The Christmas party was a really fun and memorable event and I'm really glad I was the first class of CYO to experience it. As always, the CYO staff and teachers went all out with the food, decorations and activities. The turnout might've been a little underwhelming but everyone that had showed up had a great time.

My favorite part was the slideshow of all the big events and when everyone got to speak in front of everyone about their experience in CYO. This event made everyone that came a little nostalgic and closer as a family because we got to talk positively about our CYO experience and hope for the great times we will have in the next year. Oh yeah, also CYO people reading this: you better show up next year.



Dylan Jang 12<sup>th</sup> grade



Even though as a senior this is my first and last Christmas Party of CYO, it's one that I'll never forget because of how great of an experience this was not only to me but to those who came out to CYO. Even though we only had about 20 people, the quality of the party gave it the spirit to make it feel like 50 people.



Student Council



Yebeen Chang 12<sup>th</sup> grade

Although this was the first CYO Christmas event, it turned out to be one of my favorite CYO events so far! I had so much fun with every single one of the games.

My favorite moment was when I got a baby for my white elephant. I hope for this event to go on for years to come.



## THE EPIPHANY OF THE LORD (SOLEMNITY)

January 5, 2019

### The Epiphany



<바로말콘텐츠>

At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we celebrate both Mary, the Mother of God, and **the Epiphany**, which is when the wise men came from far away to worship baby Jesus.

Imagine that you are living a long time ago in Bethlehem and your parents have invited a poor family to stay at your house: a mother, a father, and a new baby.

One day something amazing happens. Some rich men from a far away country come to see the baby and bring expensive treasures for him! Do you know who the family is now? Who is the baby?

The baby is Jesus, of course, and the mother is Mary. She holds Jesus on her lap so the wise men can bow down to Him and worship Him. Mary cooperated with God to bring Jesus into the world so that we could all see and love and worship Him. <<https://www.thekidsbulletin.com>>

#### The Word "Epiphany"

comes from the Greek epiphainen, a verb that means "to shine upon," "to manifest," or "to make known." Thus, the feast of the Epiphany celebrates the many ways that Christ has made Himself known to the world, mainly the three events that manifested the mission and divinity of Christ: the visit of the Magi (Matthew 2:1-12), the baptism of Jesus (Mark 1:9-11), and the miracle at Cana (John 2:1-11). The visit of the Magi is emphasized on Epiphany Day, and Christ's baptism is celebrated the first Sunday that follows.



#### Q How is the Date of the Feast of the Epiphany Determined?

The date of Epiphany, one of the oldest Christian feasts, is January 6, the 12th day after Christmas. However, in most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celebration of Epiphany is transferred to the Sunday that falls between January 2 and January 8 (inclusive). Greece, Ireland, Italy, and Poland continue to observe Epiphany on January 6, as do some dioceses in Germany.

Because Epiphan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ristian feasts, it is a Holy Day of Obligation.

#### Q When is the Feast of the Epiphany This Year?

Epiphany 2020 : Monday, January 6, 2020  
(transferred to Sunday, January 5, in the United States and most other countries)

<<https://www.catholicnewsagency.com/>> <<https://www.learnreligions.com/>>

###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 아멘

### Epiphany : True or False?

How well do you know the story of wise men?  
Which of these are true and which are false?

1. Wise men came from the West to find the Baby Jesus. **True or False?**
2. The wise men went and asked King Caesar where the Messiah would be born. **True or False?**
3. The King told them to come back and tell him where the Baby was once they found Him so that he could go and worship Him. **True or False?**
4. When the wise men found the Child and His mother they bowed down and gave Him gifts. **True or False?**
5. The gifts they gave were gold, frankincense and myrrh. **True or False?**
6. When they were going to go back and tell the king where the Baby was, they had a dream that told them not to. **True or False?**
7. The wise men went back to their land by the same road that they had come. **True or False?**





**1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1월 5일(일) 오전 11:30 (B-1,2)

**2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1월 5일(일) 오후 1시 (B-1)

**3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 1월 5일(일) 오후 1시 (A-3)

**4 동전 모으기 저금통**

• 불우 이웃돕기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1월 5일까지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동전 분류 작업**

• 동전 저금통 분류 작업 및 정리를 도와 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월 5일(일), 12일(일), 10시 미사 후 (A-1,2)  
 • 문의 : 김 소피아 (703)314-0905

**6 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 일시 : 1월 10일(금) 오후 7:30, 미사 후 묵주기도

**7 1월 공동체 기도회**

• 일시 : 1월 11일(토) 오후 8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해당 공동체에 참석하여 신앙과 사랑을 나누시다.

**8 2019년 교무금 납부 안내**

• 2020년 교무금 카드는 세무공제 납부서와 함께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발송되니 당분간 카드없이 납부해 주십시오.

**9 단체장 회의**

• 일시 : 1월 12일(일) 오전 11:30 (B-3,4)

**10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월 12일(일) 오후 1시 (B-1,2)

**11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년 - 2021년)**

•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성경 필사 주간 계획표가 주보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2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운동)**

•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생명 수호 행진이 내셔널 몰에서 U.S. Supreme Court 까지 실시됩니다.  
 • 일정 : 1월 24일(금) 오후 12시, 성당에서 출발(점심제공) 따뜻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선착순 55명, 1월 19일까지(친교실, 사무실)  
 • 문의 : 사무실 (703)968-3010

**13 25주년 기념 묵주기도 1백만단 봉헌**

• 본당승격 25주년을 맞아 본당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지향하며 새해부터 묵주기도 1백만단 봉헌을 시작합니다. 또한 ‘25주년 기도문’을 매 미사 전에 봉헌하니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본당 웹사이트 영어 번역 봉사자 모집**

• 본당 웹사이트의 한글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 : 1월 18일까지  
 • 연락처: juyong\_j@hotmail.com, lawyjun@gmail.com (703)785-0545, (703)509-2287

● 교황님의 1월 기도 지향 ●

**복음화 지향 : 세계 평화 증진**  
 그리스도인들과 타종교인들은 물론 선의의 모든 사람이 세계 평화와 정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The Pope's January Prayer Intentions**  
**Promotion of World Peace**  
 We pray that Christians, followers of other religions, and all people of goodwill may promote peace and justice in the world.

**KACM TV 하이라이트**

1월 9일(목) 오후 5:00-6:00  
 1월 10일(금) 저녁 8:00-9:00  
 1월 12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특집 녹화 중계:  
 성 정 바오로 성당의 성탄 미사 이모저모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1월 8일(수) 오전 6:15-6:45  
 1월 11일(토) 오전 8:00-8:30

•황창연 신부님의 강의 '행복 특강' (5부)  
 ※ 카카오톡에 '라디오 워싱턴 AM1310'을 친구로 추가하시면 스마트폰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12월 29일(성가정 축일)

주일헌금	\$7,631.00
교무금	\$28,115.00
교무금(크레딧카드)	\$11,170.00
감사헌금	\$1,600.00
2차헌금	\$13,485.00
규유예물	\$25,666.00
<b>합계</b>	<b>\$87,667.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영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젠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오), 장미애(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례(안나), 이영민 (다윗)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분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창(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카멜리아), 최용성(프란치스코), 정수지(요안나),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견안드레아),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호산), 안병진(다니엘), 제이슨 영학 (마틴), 이상록 (다윗)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 모임
1월 5일(일)	주님 공현 대축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A-3)
6일(월)	주님 공현 대축일 후 월요일	평일미사(오전 6시)
7일(화)	주님 공현 대축일 후 화요일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기도회(오후 8시)
8일(수)	주님 공현 대축일 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9일(목)	주님 공현 대축일 후 목요일	평일미사(오전 6시)
10일(금)	주님 공현 대축일 후 금요일	평일미사(오후 7:30), 성소를 위한 미사(오후 7:30), 바오로 형제모임(오후 8시), 25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11일(토)	주님 공현 대축일 후 토요일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1월 12일(일)	주님 세례 축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오전 11:30, B-1,2), 베드로회 모임(오후 1시, A-1,2)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적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소아전문 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커머셜 김준 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원 통증 · 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뉴욕라이프</b>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HYN 부동산</b>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b>제니스김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워싱턴 노인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경희 바울 한의원</b>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b>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재무설계</b>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b>DK 건강 보험</b> 메디케어(Supplement, Advantage C, Part D 포함) 건강/생명보험 가입 및 신청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클로이 양 부동산</b>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